마음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㊵ 무위진인(無位眞人)

"오직 여러분들의 눈앞에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삼악도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꽃밭에서 노는 것처럼 하며, 아귀도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아무런 과보를 받지 않나니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싫어 꺼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 속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니라.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 마음이 없으면(無心) 번뇌가 어찌 구속하리오. 애써 분별하여 상(相)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으리라. 그대들이 엉뚱한 길에서 허둥지둥 헤매며 배우려 한다면 3아승지겁이 지나도록 공부해도 마침내 생사윤회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의 좌선하는 자리에 가부좌하고 앉는 것만 못 할 것이니라."

이 장에 와서도 가만히 무위진인(無位眞人) 이야기를 다시 꺼내 말하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무위진인이다. 꼴이 없고 틀이 없는 사람으로 불성(佛性) 자체를 지칭하는 이른바 '한 물건'이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져 가라앉지 않아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선가귀감〉 첫 구절과 〈금강경오가해서설〉 첫 구절에도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有一物於此)' 하고 소개되어 나오는 그것이다. '본래 신령스럽고 밝지만 생겨나지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아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하였고 또 '이름도 모양도 없되 고금을 꿰뚫고 하늘과 땅보다 먼저이면서 시작이 없고 하늘과 땅보다 나중이면서도 끝이 없다' 하였다.

이것을 원상(圓相)으로 그려놓고 송(頌)을 지어 원상송(圓相頌)이라 했다.

古佛未生前 옛 부처 나기 전에
凝然一相圓 한 모양이 엉키어 둥글었네
釋迦猶未會 석가도 오히려 몰랐거늘
迦葉豈能傳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하랴

이 원상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남양 혜충(南陽 慧忠 · ?~775)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조 도일(馬祖道一 · 709~788)이 먼저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 물론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 혜충의 출생연도가 밝혀지지 않아 누가 연장자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혜충은 육조 혜능의 제자이고 마조는 남악 회양의 아래인 육조 2세이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경산도흠전(徑山道欽)〉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마조가 경산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 안에는 글이 없고 원상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뜯어본 경산이 원상 안에 점을 하나 찍어 다시 봉하여 마조에게 보냈다. 이 이야기를 혜충국사가 전해 듣고 "경산이 마조에게 속았구나"고 말했다 한다.

〈선문염송설화〉 165칙에는 어떤 학인이 찾아왔을 때 마조가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원상 안으로 바로 들어왔고 마조는 그를 때렸다. 학인이 말했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마조는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원상(○) 곧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한 물건'을 임제는 무위진인과 무의도인(無依道人)으로 표현했다. 이 사람이 지옥이나 아귀 축생 등 3악도에 들어가도 과보가 없다고 하면서 임제는 상(相)을 분별함이 없는 무심(無心)에 돌아갈 것을 재촉한다. 무심하다면 어찌 번뇌에 구속되리오 하고 일갈하고 있다. 이 말의 저변에는 돈오(頓悟)하면 돈수(頓修)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임제의 종지가 깔려있다. 임제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법문은 직설(直說)이다. 복잡한 곡담(曲談)을 싫어하고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말한다. 임제의 직설은 압축되고 압축되어 언어를 뛰어넘는 '할(喝)'이 되고 말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행자는 美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 속 경전읽기

㊵ 불염착경(不染着經)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의 일이다. 한 청신녀(淸信女)가 청화 스님께 "진달래가 참 아름답게 피었네요"라고 하니, 스님께서 "네 아름답습니다"고 하셨다. 진달래꽃 풍경에 흠뻑 취한 청신녀가 한마디 말만으로는 감흥 표현에 미진하였던지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워요"를 두세 번 되풀이하였다. 물끄러미 청신녀를 바라보시던 스님께서 "수행자는 아름다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해마다 봄이면 앞뜰에 나리 몇 그루가 새 싹을 틔운다. 나리대가 부쩍 자라 6~7월에 꽃봉오리가 맺히면, 매일 이른 아침에 뜰에 나가 꽃이 피었나 살피게 된다. 꽃봉오리가 맺혔다고 며칠사이에 금방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니, 이제나저제나 꽃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바심마저 일어난다. 봉오리 맺히고 한참 지나 꽃봉오리의 초록색이 옅어지고 붉은 색조를 띄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꽃이 피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기대를 가지고 살피게 된다. 꽃봉오리는 봉오리대로 아름답건만, 피어나는 꽃을 보려는 기다림과 조바심은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들 범부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염착[染着 · 물들어 집착함]하여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다가 만일 그 빛깔이 무상하여 변하고 바뀌거나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곧 큰 괴로움을 느낀다. 눈으로 보는 색(色)뿐 아니라, 귀[耳] · 코[鼻] · 혀[舌] · 몸[身] · 뜻[意]의 대상인 소리[聲] · 냄새[香] · 맛[味] · 감촉[觸] · 법(法)에 염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지내다가 그 법이 무상하여 변역(變易)되고 멸진(滅盡)하게 되면 사람들은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여래는 색(色)과 색의 원인[色集] · 색의 소멸[色滅] · 색의 맛들임[色味] · 색의 근심과 재난[色患] · 색에서 벗어남[色離]을 사실 그대로 안다[如實知].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색에 대해서 다시는 염착하거나 사랑하고 좋아하여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색이 변역되고 무상하여 멸진하게 되더라도 곧 즐거움에 머무른다.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법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소멸과 맛들임과 근심과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안 뒤에는 다시는 염착하거나 사랑하고 좋아하여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 대상이 변역되고 무상하여 멸진하게 되더라도 곧 즐거움에 머무른다.

왜냐 하면 눈[眼]과 색(色)을 인연하여 안식(眼識)이 생기고, 이 세 가지[眼 · 色 · 眼識의 三事]가 화합한 것이 접촉[觸]이며, 접촉을 인연하여 괴롭거나[苦] 즐겁거나[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不苦不樂] 세 가지 느낌[三受]이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느낌의 원인[受集]과 느낌의 소멸[受滅] · 느낌에 맛들임[受味] · 느낌의 근심과 재난[受患] · 느낌에서 벗어남[受離]을 사실 그대로 알아 그 색(色)을 인연하여 장애가 생길 때 장애를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것이 '위없이 안온한 열반[無上安隱涅槃]'이다.

귀 · 코 · 혀 ·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意]과 법(法)을 인연하여 의식(意識)이 생기고 (意 · 法 · 意識의) 삼사(三事)가 화합한 것이 접촉이며, 접촉을 인연하여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게 된다. 그 느낌의 원인 · 느낌의 소멸 · 느낌에 맛들임 · 느낌의 근심과 재난 · 느낌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안 뒤에 그 법을 인연하여 장애가 생길 때 그 장애를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것을 위없이 안온한 열반이라고 한다.

이상은 〈잡아함경〉 13권 308번 불염착경(不染着經)의 내용으로, 요약하면 범부중생은 무상하여 변역되고 멸진하는 대상에 염착하여 애락(愛樂)하다가 대상이 멸진하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여래는 무상한 연기법(緣起法)을 알아서 6근과 6진과 6식의 삼사화합으로 인한 촉수(觸受)에 염착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멸진하여도 무상안온열반에 머무른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㊱ 깨침의 길 1

붓다의 깨침, 그 실존적 의미

우리나라는 부처님오신날(음4.8)을 비롯하여 출가재일(2.8), 성도재일(12.8), 열반재일(2.15)을 불교의 4대 명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찰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념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젠가 제법 규모가 큰 교구본사를 방문했다가 올해 성도절을 어떻게 기념했는지 물어봤더니, 절에서는 특별한 행사 없이 평소처럼 보냈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성도재일(成道齋日)은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날은 글자 그대로 도를 이룬 성도(成道), 즉 석가모니의 깨침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도절이 중요한 것은 중생 싯다르타가 도를 이루고 깨달은 사람(覺者), 즉 붓다(佛)가 되었으며 그분의 가르침(敎)이 곧 불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엄밀히 말한다면, 불교의 역사는 석가모니의 탄생이 아니라 성도에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도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싯다르타가 도를 이룬 그날 보리수 아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소부경전〉 '우다나' 편에는 그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싯다르타를 괴롭히고 급기야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진지한 사유(思惟)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중생 싯다르타를 깨달은 붓다로 이끈 원천은 다름 아닌 생각(生覺)에 있었던 것이다. 성도는 잠자고 있던 싯다르타의 삶(生)을 일깨운(覺) 종교적 체험이었다.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생각이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조우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생각은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낯선 상황과 만날 때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항상 아파트 101동에 주차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102동에 주차했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102동이 아니라 101동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평소 101동에 주차했던 습관 때문이다. 그런데 101동으로 가면 차가 보이지 않는 낯선 상황과 만나게 되고 '왜 차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젯밤 일은 그때 비로소 떠오른다.

싯다르타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문유관(四門遊觀), 즉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의 '낯선' 만남을 통해 '삶과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출가를 하고 치열한 수행 끝에 깨침에 이르렀으며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각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붓다의 깨침과 사유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왕자 싯다르타의 궁중 생활은 익숙한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반왕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성문 밖의 낯선 만남을 통해 그는 주체적인 삶, 즉 사는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일대 전환을 이루었다. 붓다의 출가와 성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은지성 작가의 책 제목처럼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업(業)의 관성 때문에 그렇다. 중생이란 다름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추느라 삶이 늘 정신없이(mindless) 흘러갈 뿐이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진정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욕망이 투영되어 지갑을 열게 된다. 그러나 붓다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mindful) 삶을 산다. 중생에서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비밀이 '생각'에 있었던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